

'에너지 절약하고 인센티브 받고'

전주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여한 9775가구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최근 2년간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 5% 이상 감축 세대에 연 최대 10만원

전주시가 전기, 도시가스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에 실천한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중 에너지를 절약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9775가구에 총 1억7548만 원의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시민참여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는 최근 2년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5% 이상 감축한 세대에 연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제도다.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지급된다.

지난해 하반기 9775가구가 감축한 에너지 절감량은 이산화탄소 발생을

4183.5톤 줄인 규모로, 이는 소나무 94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양에 해당된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도 가능한데, 총 349가구가 667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 기부금은 전주 연탄은행과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랑'에 전달돼 각종 사회공헌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기·수도·가스 고객번호를 확인한 뒤 탄소포인트제 모바일 또는 홈페이지(point.or.kr)에 접속해 가입하거나 전주시청 맑은공기에너지과(완산구 노송광장로 20, 4층)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전기와 상수도, 도시가스는 생산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해 기후변화의 원인 중 하나"라며 "가정 속 에너지절약 실천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25일까지 탄소포인트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커피쿠폰이 지급되며, 신규 가입자를 가장 많이 추천한 기존 참여자 30명에게는 백화점상품권 5만 원권이 제공된다. 당첨자 명단은 다음 달 14일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고유번호 기입된 인식표로 치매 노인 실종 막는다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조속한 발견·복귀 지원 위해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무상 보급

전주시가 치매 노인 실종을 막기 위해 신청자가 담긴 인식표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실종 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발급하고, 지문 사전등록제 및 배회감지기 배부 등 실종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등 실종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고령층에게 고유번호가 기입된 인식표를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다. 고유번호에는 이름, 사진, 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의 정보가 담겨 있어 치매안심센터와 경찰서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종 노인의 신상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배부된 인식표는 치매환자의 옷과 신발, 손수건 등에 다라미로 다려 부착해 사용할 수 있으며, 부착한 상태로 세탁도 가능하다. 발급 시에는 인식표 80매와 보호자 보관용 실종 대응 카드가 함께 지급되며, 인식표가 소진된 경우 무상으로 재발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018년부터 치매 노인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경찰청 실종자 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치매 노인 발견 시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지문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경찰서는 GPS를 통한 위치추적이 가능한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다.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을

위해서는 대상자 사진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해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문 사전등록의 경우 치매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3-281-623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도움용품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환자 가족 지원 ▲인지재활 프로그램 및 치매예방교실 운영 등 치매 노인을 보호하고 치매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수돗물 안전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로 확인하세요"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안심확인제·공동주택 물음용 컨설팅·현장서비스 연중 운영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최훈식)는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 안심확인제'와 '공동주택 물음용 컨설팅 및 현장점검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수돗물 수질을 확인하고 싶은 시민들이 전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물사랑 홈페이지(glovewater.or.kr)에 검사를 신청하면, 전주시 수질검사실 담당 공무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 수돗물 시료를 채수한 뒤 무료로 수질검사를 하게 된다.

검사항목은 ▲탁도 ▲pH ▲철 ▲중 ▲잔류염소 ▲아연 등 수돗물 급수과정에서 2차 오염이 우려되는 1차 항목에 ▲공간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염소이온 등을 더해 총 10개다.

1차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오면 ▲색도 ▲경도 ▲암모니아성질소 등 2차 수질검사가 추가로 진행된다.

수질검사를 신청한 시민들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질검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이와 함께 맑은물사업본부는 지난 2018년부터 전주시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물음용 컨설팅 및 현장점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수돗물 50개 전 항목에 대해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수질검사 성적서'와 '깨끗한 수돗물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수돗물 안심확인제로 58곳에서, 공동주택 물음용 컨설팅 및 현장점검으로 66곳에서 수질검사가 실시된 가운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윤상 기자

이와 함께 맑은물사업본부는 지난 2018년부터 전주시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물음용 컨설팅 및 현장점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수돗물 50개 전 항목에 대해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수질검사 성적서'와 '깨끗한 수돗물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수돗물 안심확인제로 58곳에서, 공동주택 물음용 컨설팅 및 현장점검으로 66곳에서 수질검사가 실시된 가운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의사회·온누리안과·조병춘안과, 통합돌봄 당뇨 노인 집중관리 '맞손'

전주시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기관인 전주시의사회(회장 정경호)는 온누리안과병원(병원장 정영택), 조병춘안과(원장 조병춘)와 17일 통합돌봄 당뇨 노인 집중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합돌봄 당뇨 노인 집중관리사업은 노인들이 스스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과 단체의 협업을 통해 노년층 교육부터 약물 복용, 운동, 식이 등 생활습관 개선을 돕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온누리안과병원과

정경호 전주시의사회장은 "당뇨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안과검사를 지원키로 해주신 온누리안과병원과 조병춘안과에 감사드린다"며 "민관 협력체계를 통한 통합돌봄 대상 노인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준배 전주시 통합돌봄과장은 "통합돌봄 당뇨 노인 집중관리 사업은 전주시의사회와 약사회, 대한물리치료사회 전북도회 등의 협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면서 "전주시 통합돌봄 건강-의료안정망 강화를 위해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정경호 전주시의사회장은 "당뇨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안과검사를 지원키로 해주신 온누리안과병원과 조병춘안과에 감사드린다"며 "민관 협력체계를 통한 통합돌봄 대상 노인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준배 전주시 통합돌봄과장은 "통합돌봄 당뇨 노인 집중관리 사업은 전주시의사회와 약사회, 대한물리치료사회 전북도회 등의 협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면서 "전주시 통합돌봄 건강-의료안정망 강화를 위해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완산수영장 출입구 방역 관리 시스템.

방역수칙 준수 철저 전주완산수영장 재개장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이용객·직원 검사 결과 전원 음성... 방역체계·투철한 시민의식 빛나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임시폐쇄됐던 전주완산수영장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17일 정상 운영을 재개했다.

17일 전주시실공단(이사장 백순기)에 따르면 완산수영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수영장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 15~16일 이틀간 임시로 문을 닫았다.

전주시 보건소는 이 기간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수영장을 이용한 이용객과 수영장 직원 등 40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으며,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와 이날 운영을 재개했다.

이처럼 빠른 운영 재개는 공단의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과 방역수칙 준수의 결과로 평가 받는다. 완산수영장은 1단계 손 소독, 2단계 출입자명부 작성(QR코드), 3단계 열화상 체크, 4단계 비접촉 온도측정까지 출입 시 단계별 One-Stop 방역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체 개발한 입장 인원 카운터기를 설치해 거리두기를 지키며 입장 인원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며, 하루 4회 꼼꼼히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백순기 이사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준 수영장 직원들과 이용객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공공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도 빛났다. 탈의실과 샤워실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샤워 시 거리두기 또한 철저히 유지해 시설 내 감염 확산을 예방한 것이다.

백순기 이사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준 수영장 직원들과 이용객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공공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